

무예인, 또한 전문 치료사로서 걸어온 길과 자기소개

모든 70 년대의 '쿵후' 시리즈물에 나오는것 처럼, 사부는 그의 문하생들에게 무예의 수련과정에서 인생의 진정한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시절, 저는 이것이 나의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이 아직 무의식속에 있었습니다.

이 무예의 길은 제게 또한 의학에의 관심을 열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의학을 접했고, 전념을 다했습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일년 후, 저는 간호학 전문교육을 이수했고, 졸업후에는 15년간 전문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전문인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저는 그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전통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동시에 하노버의 AMARA-Schule 에서 민간요법 전문사 과정과 자연치유학을 전공했습니다.

2000년에는 30년 전통의 Anne Witt 와 Dr. phil. Georg Klaus 의 Praxis 에 함께 일할수 있도록 초대되어, 2001년 부터 그들과 같은 Praxis 에서 'Sven Angersbach' 자연치유요법 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공동 소유주로 또한 전문치료사로 일하며, 계속해서 이 값진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여전히 제 삶의 정신적 토대입니다.

학업중엔 공인 4 단이었고, 현재는 공인 7 단입니다.

무예와 의학은 제게 별개의 무엇이 아닌 '하나' 이며, 그것은 '무도' 라는 이름으로 제 삶에 계속적으로 깊은 채움을 주고있습니다.